

청담뷰티공단

한겨레신문

선담은 기자



'케이(씨)뷰티' 트렌드의 중심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늘에 어둠이 내린다. 골목마다 자리 잡은 '청담동 미용실'의 화려함에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청춘들의 고단함이 깔려 있다. 최고가 되기 위해 '꿈의 공장'인 이곳을 찾았지만, 철저한 서열과 위계 구조로 짜인 일터에서 저임금 열정페이로 손에 쥐고 꼭대기로 오르는 쉽지 않다. 헤어와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미용 관련 분야의 이미지를 유리판 위에 모아 찍었다. 이경아 기자 lee@hani.co.kr

“진짜 기자님 맞아요? 여기 완전 고인 물이에요. 저 꼭 인터뷰하고 싶어요.”

2018년 10월 3일. '청담뷰티공단' 취재를 시작한 지 한 달하고 열흘이 됐을 무렵이었다. “패션잡지에 나오는 머리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품고 청담동에 온 6년 차 스태프 지원(가명·25)에게 드디어 연락이 온 것이다. 지원의 답장이 오기 전 보름 동안 나의 일과는 미용실 구인·구직 카페, 20대 여성들이 주로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지역 맘카페 등을 돌며 과거 '청담동 미용실'에서 일했거나 현재 근

무하고 있는 스태프들이 쓴 글에 인터뷰를 요청하는 댓글과 쪽지를 남기는 일이었다. 그러나 수십, 수백 개의 글을 뿌려도(?) 인터뷰를 하겠다는 답장은 '0'. 가름에 콩 나듯 오는 '청담동 스태프'들의 반응은 나를 또 한번 한숨 쉬게 만들었다.

“만약 저란 거 들키면 전 미용업계에서 완전히 퇴출이에요. 제가 들은 거 하나 그냥 얘기해드리자면, ○○(미용실 상호) 아시죠? 저 아는 분이 거기서 일했었는데 직급 높은 스태프한테 맞으셨어요. 근데 그걸 거기 ○○부원장한테 말했더니

맞은 분한테 나가라고. 미용업체가 이렇습니다.” (2018년 9월 17일 한 여초 커뮤니티에 ‘청담동 스태프’가 쓴 댓글)

청담동 미용실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걸까. 무엇이 그곳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일까. 당장 눈앞의 모니터 속에선 매일 이어지는 새벽 출근을, 미용실 선배의 텃세를, 한 달 100만 원이 될까 말까 한 저임금을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넘쳐나는데 누구 하나 속 시원히 그 사정을 말해주겠다는 이가 없었다. 수습 시절, 남구로역 인력사무소를 돌며 찾았던 중국동포 ‘십장(작업팀장)’ 취재와 비교해도 청담동 미용실은 정말 ‘노답’이었다.

“이 기획, 진짜 기사로 만들 수 있을까?” 자신감을 잃어가던 그때, 지원이 ‘귀인’처럼 나타났다. “진짜 기자님 맞아요?” 온라인 카페의 ‘비밀댓글’을 통해 그가 남긴 첫마디는 마치 무인도에 갇힌 누군가가 내게 보내는 구조신호처럼 들렸다.

우리는 다음 날 저녁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저녁 8시가 다 돼서야 나타난 지원은 그때까지 저녁을 먹지 못했다. 밥 대신 시킨 녹차 케이크를 먹으며



‘청담뷰티공단’의 중심인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의 풍경. 미용업계에선 청담동·압구정동·신사동 일대에 자리한 미용실을 묶어 ‘청담동 미용실’이라고 부른다. 2016년 기준 ‘청담동 미용실’은 모두 355곳으로, 강남구 소재 미용실 전체(1210곳)의 29%를 차지한다. 종사자 수 또한 전체(6209명)의 50%가 넘는 3431명에 이른다. 이정아 기자 lee@hani.co.kr

지원이 말했다.

“지난봄에 (드라마 촬영) 해외 출장을 4박 6일 간 적이 있는데, 4만 원 받았어요. 일한 거에 대한 수당은 없고 숙박비로요. 비행기 티켓은 제작사에서 주는 거고, 비행기 타고 왕복 10시간 다니고 이런 건 포함 안 되는 거죠.” 청담동 미용실 스태프들의 노동조건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이었다.

어떤 면에서 ‘청담뷰티공단 리포트’는 2013년 청년유니온이 발표한 ‘미용실 스태프 근로조건 실태조사 보고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기획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왜 이 기사를 썼냐고 묻는다면, 나는 “10년 전 압구정동 미용실에서 30만 원을 받다 꿈을

포기한 H 때문”이라고 답하겠다.

H를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늘 구겨진 교복 차림에 지각이 잦은 아이. 수업시간 대부분 엎드려 잠을 잤던 H가 대학 진학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나와 딱히 공통분모가 없었던 H에게 관심이 생긴 건 그가 미용학원을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서부터였다. 대학에 가는 것 외에 ‘꿈’이란 게 없었던 우리와 달리 쉬는 시간이면 전문가용 고테기를 꺼내 친구들의 머리를 만져주곤 했던 그 아이의 모습은 좀 남달라 보였다.

삼푸 독과 중화제 독이 올라 손가락 마디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미용노동자들의 손. 미용계의 노동문화는 이 같은 ‘산업재해’를 헤어 디자이너로서 성공하기 위한 통과의례로 치부한다. 이는 미용실 스태프들이 자신의 노동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걸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그 시절 H는 ‘성공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 H의 가족은 함께 살지 않았다. 자신과 언니는 고모 집에서 살고, 아빠는 전국의 공사현장을 다니며 일한다고 했다. ‘헤어 디자이너’가 꿈이었던 그는 고3이 되자 ‘직업반’을 선택했고, 월요일을 제외하곤 아현직업전문학교(현재 아현산업정보학교)에서 미용기술을 배웠다. 그리고 우리가 수능시험을 치르던 그 겨울, H는 압구정동 미용실의 스태프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H가 압구정동에서 일했던 3년 동안 그를 통해 미용실의 식사시간은 불규칙하다는 것, 정식 디자이너가 되기 전까진 급여가 낮다는 것, 손님을 상대하는 ‘감정노동’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어른들 말대로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딴겠냐’며 H의 하소연에 알량한 훈계도 했던 것 같다. 너도나도 어학연수와 취업을 준비했던 2008년 여름, H가 미용실을 관두고 불법 다단계에 빠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우리는 H에게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했고, 동시에 그가 ‘노오오오력’이 부족해 꿈을 접은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미용실 스태프로 일하며 H가 받은 급여와 그의 노

동조건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은 10년이 흘렀다.

2018년 여름의 나는 서른이 넘어 ‘늦깎이 입사’를 한 2년 차 기자가 됐고, ‘청담뷰티공단’은 수습기자 채용 실무평가 때 작성했던 기획안이었다(이 기획안의 첫 제목은 “지금 내리실 역은 ‘청담뷰티공단’입니다”였다). 기획안의 시작부터 끝까지 H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었다. 10년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그건 내 ‘처지’였다. 스물일곱 살에 대학을 졸업한 뒤로 인생이 꼬여버린(?) 나는 언론사 입사 시험에 수십 번 떨어지며 각종 아르바이트

와 비정규직, 불안정한 공부노동자 생활을 전전했다. 그 시기, 이력서의 경력 한 줄이 아쉬웠던 나는 열거에 ‘열정페이’ 노동(그땐 ‘열정페이’란 말이 등장하기 전이었다)에 뛰어들었고, 20대 후반의 어느 날에야 비로소 H가 ‘압구정 스태프’ 생활을 접었던 건 그의 ‘노오오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벼락 맞은 듯 깨달았다. ‘청담뷰티공단 리포트’가 내 20대에 대한 반성문인 이유다.

반성에 앞서 H를 만나야 했다. 10년 만에 만난 H는 현재 수도권의 한 도농복합도시에 살고 있다. 압구정동 미용실을 그만둔 뒤, 명품수선업체와 수제 비누를

‘청담동 미용실’은 ‘외곽(청담동·압구정동·신사동 외 미용실)’과 달리 밖에서 내부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 미용실의 위치 역시 눈에 잘 띄는 큰길보다는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것이 특징이다. 카페나 갤러리 같은 모습으로 자리한다. 이러한 비가시성은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이 ‘청담동 미용실’에서 사적이고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을 준다. 이정아 기자 lee@hani.co.kr



구분	상대	비고	지급내역	잔액	잔액
1. 기본급	1,000,000				
2. 인건비	44,000	2018년 1월 1일	2018년 1월 1일	44,000	
3. 퇴직금	1,000,000				
4. 기타소득	1,000,000				
5. 기타소득	1,000,000				
6. 기타소득	1,000,000				
7. 기타소득	1,000,000				
8. 기타소득	1,000,000				
9. 기타소득	1,000,000				
10. 기타소득	1,000,000				
11. 기타소득	1,000,000				
12. 기타소득	1,000,000				
13. 기타소득	1,000,000				
14. 기타소득	1,000,000				
15. 기타소득	1,000,000				
16. 기타소득	1,000,000				
17. 기타소득	1,000,000				
18. 기타소득	1,000,000				
19. 기타소득	1,000,000				
20. 기타소득	1,000,000				
21. 기타소득	1,000,000				
22. 기타소득	1,000,000				
23. 기타소득	1,000,000				
24. 기타소득	1,000,000				
25. 기타소득	1,000,000				
26. 기타소득	1,000,000				
27. 기타소득	1,000,000				
28. 기타소득	1,000,000				
29. 기타소득	1,000,000				
30. 기타소득	1,000,000				
31. 기타소득	1,000,000				
32. 기타소득	1,000,000				
33. 기타소득	1,000,000				
34. 기타소득	1,000,000				
35. 기타소득	1,000,000				
36. 기타소득	1,000,000				
37. 기타소득	1,000,000				
38. 기타소득	1,000,000				
39. 기타소득	1,000,000				
40. 기타소득	1,000,000				
41. 기타소득	1,000,000				
42. 기타소득	1,000,000				
43. 기타소득	1,000,000				
44. 기타소득	1,000,000				
45. 기타소득	1,000,000				
46. 기타소득	1,000,000				
47. 기타소득	1,000,000				
48. 기타소득	1,000,000				
49. 기타소득	1,000,000				
50. 기타소득	1,000,000				
51. 기타소득	1,000,000				
52. 기타소득	1,000,000				
53. 기타소득	1,000,000				
54. 기타소득	1,000,000				
55. 기타소득	1,000,000				
56. 기타소득	1,000,000				
57. 기타소득	1,000,000				
58. 기타소득	1,000,000				
59. 기타소득	1,000,000				
60. 기타소득	1,000,000				
61. 기타소득	1,000,000				
62. 기타소득	1,000,000				
63. 기타소득	1,000,000				
64. 기타소득	1,000,000				
65. 기타소득	1,000,000				
66. 기타소득	1,000,000				
67. 기타소득	1,000,000				
68. 기타소득	1,000,000				
69. 기타소득	1,000,000				
70. 기타소득	1,000,000				
71. 기타소득	1,000,000				
72. 기타소득	1,000,000				
73. 기타소득	1,000,000				
74. 기타소득	1,000,000				
75. 기타소득	1,000,000				
76. 기타소득	1,000,000				
77. 기타소득	1,000,000				
78. 기타소득	1,000,000				
79. 기타소득	1,000,000				
80. 기타소득	1,000,000				
81. 기타소득	1,000,000				
82. 기타소득	1,000,000				
83. 기타소득	1,000,000				
84. 기타소득	1,000,000				
85. 기타소득	1,000,000				
86. 기타소득	1,000,000				
87. 기타소득	1,000,000				
88. 기타소득	1,000,000				
89. 기타소득	1,000,000				
90. 기타소득	1,000,000				
91. 기타소득	1,000,000				
92. 기타소득	1,000,000				
93. 기타소득	1,000,000				
94. 기타소득	1,000,000				
95. 기타소득	1,000,000				
96. 기타소득	1,000,000				
97. 기타소득	1,000,000				
98. 기타소득	1,000,000				
99. 기타소득	1,000,000				
100. 기타소득	1,000,000				

2013년 ‘청담동 미용실’에 입사한 시아게(일본어로 ‘마무리’라는 뜻)급 스태프 직원(25)이 이메일로 받은 급여명세서. 2018년도 최저임금은 157만3770원이지만, 미용실은 기본급 160만 원 가운데 식대·재료비 15만 원을 공제해 지급했다. 청담동에서 받은 첫 급여가 60만 원대였다는 직원은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만드는 공장 등에서 경리로 일했던 그는 스물여덟 살 때 용접사인 남편과 결혼해 두 아이를 얻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남편의 야근이 줄어든 만큼 가벼워진 지갑 사정을 걱정하는, 영락없는 주부였다. 갓 돌이 지난 둘째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에서 그가 한때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며 압구정동 미용실에서 일했던 사실을 떠올리긴 어려웠다. H는 더는 미용 일에 미련이 남은 것 같진 않았다. 그냥 “일이 하고 싶다”고 했다. H의 재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건 역시 아이였다.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시댁에서 종종 아이를 봐주긴 했지만, 며느리의 취업은 반대했다. ‘아이는 아이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H는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낸 뒤 취업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그때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선 딱히 답을 내리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청담뷰티공단’은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았던 기획이다. H를 염두에 두고 썼던 만큼 원래의 기획안은 청담동 미용실의 20대 스태프들 중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중심이었다. 다시 말해, H처럼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으며, 평생 ‘정규직’ 일자리를 경험해본 적 없는 미용업계 종사자, 혹은 이탈자들의 출산과 육아, 그에 따른 노동 형태의 변화를 다뤄보고 싶었다. 흔히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내 차별이나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이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중산층 이상 여성’을 중심으로 다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졸 신규채용 합격자나 대기업 임원의 남녀비율, 육아휴직제도가 그 예다.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주인공 역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중산층 이상 여성’이다.) 하지만 ‘청담동 미용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례가 될 수 있는 취재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컸던 탓에 처음의 기획대로 시리즈를 구성하진 못했다.

10년 뒤 우리가 만났던 ‘청담동 스태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스태프들에게 최저임금을 지켜줄 수 있는 미용실을 열 것”이란 그 자신 넘치던 약속을 꼭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